

실외놀이터 환경과 아동의 놀이행동에 관한 사례연구

- 서울지역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the Children's Play Behaviors and Outdoor's Environment of Child Care Center in Seoul

최목화*

변혜령**

Choi, Mock-Wha

Byun, Hea-Ry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outdoor play environments and child's play behaviors. The data were collected by this study include field measurement survey, and non-participatory observation from 8 child care centers in Seoul. The field measurement survey were conducted from February 20 to March 20, 2005, whereas non-participatory behavior observation were conducted from June 15 to July 10, 2005. The major results showed the following. 1) Most of child care centers were too small, did not use the adequate surfacing to play various activities, and were made of play equipment setting. 2) Child's play behavior focused on functional play activity and construction play activity. 3) The relationship between outdoor play environments and child's play behaviors showed that small outside play environment with monotonous construction of play setting produced functional play behaviors on children. However, in some cases, despite the small and monotonous play area, diverse play behaviors were observed. These playgrounds at least differed from others in that they provided the place where multi purpose play was possible. This finding shows that multi purpose play areas can be an alternative in small playground environment.

Keywords : child care center, outdoor playground, play behaviors, outdoor play setting, outdoor play behavior setting

주요어 : 어린이집, 실외놀이터, 놀이행동, 놀이영역, 실외놀이행동세팅

1. 서론

Frost(1997)는 실외놀이 환경에서는 실내에서 경험할 수 없는 소리, 냄새, 감촉 등 다양하고 감각적인 활동이 가능하므로 실내, 실외 활동 모두 일과 진행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Wardle(1995)은 교실 내의 구조화된 학습 목표와 교실 밖 탐색이 서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실외 경험의 확장을 강조하였다(심운숙, 1994). 특히, 아동의 놀이행동에 적절한 시설 및 놀이영역으로 구성된 실외놀이 환경은 아동의 발달과 아동 교육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아동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외놀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에게 적합한 실외놀이기구(김은미, 2005)와 아동들이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할 수 있는 놀이영역이 실외놀이 환경에 제공되어야 한다.

실외놀이터의 환경 특성이 아동의 실외놀이 활동을 잘 지원해줄 수 있도록 계획되기 위해서는 환경 특성과 행동

특성간의 관계를 행태 세팅(behavior setting)이라는 관점에서 파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실외놀이터의 환경과 아동의 놀이 행동을 행태 세팅의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 연구가 전혀 없으며, 건축 또는 환경 계획 분야에서는 보육시설의 실외놀이터 환경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아동의 실외놀이 활동을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행태 세팅으로서의 실외놀이 환경을 위한 디자인지침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실외놀이 환경과 아동의 놀이행동 특성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실외놀이 환경과 놀이행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지역 어린이집 실외놀이터를 대상으로 실외놀이 환경 특성을 파악하고 실외놀이터에서의 놀이행동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실외놀이터의 물리적 환경 특성과 아동의 놀이행동과의 관계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또한, 어린이집 실외놀이터를 아동의 다양한 실외놀이 활동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행태 세팅으로 계획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실외놀이터의 환경 특성은 어떠한가?

* 정희원,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이학박사

** 정희원,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시간강사, 이학박사

본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41-C00477)

표1. 실외놀이영역 유형 분류

유형	내용	구성요소
신체놀이영역	아동의 신체 운동발달, 인지발달,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어오르기, 뛰기, 매달리기, 균형 잡기 등 주로 신체를 사용하는 놀이를 지원하는 기구나 시설들로서 대근육 활동을 하는 영역	평균대, 그네, 미끄럼틀, 시소, 철봉, 정글짐, 구름사다리, 징검다리, 줄타기, 벽타기, 흔들목마, 회전놀이기구, 종합놀이기구 등
비구조화 및 극화놀이영역	놀이시설이나 영역이 구조화되어 있지 않으며 아동이 스스로 놀이를 창조해 내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극화놀이나 구성놀이 등을 할 수 있는 영역	수영장, 놀이집, 미술영역, 모래놀이터, 물놀이영역, 자전거길, 목공놀이영역, 놀이마당 등
휴식영역	놀이 활동 가운데 휴식이나 정적 놀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영역	정자, 차양시설, 벤치/의자, 테이블, 나무마루 등
자연탐구영역	다양한 자연요소를 제공하여 자연을 관찰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된 영역	흙, 자갈/돌, 잔디, 나무/꽃, 동물장, 채소밭 등
모험놀이영역	아동이 도전해 보고 새로운 놀이를 구성하거나 창의적 놀이를 할 수 있는 영역	경사진 곳, 언덕, 계단, 터널, 미로 등

출처 : 최목화, 변혜령(2006). 영유아교육기관의 실외놀이터 실태와 만족도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5(4).

<연구문제2> 실외놀이터에서의 놀이행동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3> 실외놀이터의 환경과 놀이행동은관계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선정

본 연구는 서울지역의 어린이집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 어린이집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선정되었다. 1) 서울특별시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children.seoul.go.kr)에서 2004년도 서울시 어린이집 현황 명부에 등록된 어린이집 2,966개(2004. 12. 31 기준)를 수집하였다. 2) 서울특별시의 25개 행정구별로 정부 지원을 받고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선행연구 결과 어린이집의 적정규모인 정원 60명 이상인 어린이집을 1차 추출하였다. 3) 1차 추출된 어린이집이 가장 많은 순으로 강남구, 관악구, 노원구, 양천구를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3) 4개의 구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화면담을 통하여 실외놀이터 유무를 조사한 후, 실외놀이 활동이 정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4) 실외놀이터가 있으며 실외놀이 활동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린이집 가운데 본 연구를 위하여 놀이행동 관찰조사와 실측조사에 협조 의사를 보인 어린이집 8곳을 최종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자료수집 및 절차

본 연구는 먼저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실외놀이터 환경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실측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측조사는 2005년 2월 16일부터 3월 11일까지 조사원 2인이 조사대상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현장을 직접 실측하고 사진촬영을 병행하였다. 실측된 자료와 사진을 이용하여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실외놀이터의 배치도를 작성하였다. 다음으로 실외놀이터에서 아동의 놀이행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찰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의 놀이행동 관찰조사는 기후 및 특별한 행사 등이 예정되지 않은 날을 선정하였으며, 2005년 6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2인 1조로 구성된 조사원에 의하여 비관여 관찰조사로 각 조사대상 시설별로 3회씩 실시하였다. 아동의 놀이행동 관찰방법으로 장소중심의 관찰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실외놀이터의 실측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외놀이 영역을 분할하였다. 다음으로 실외놀이 영역의 관찰 순서를 정하여 한 영역에서 5분 관찰한 후

다음 영역을 관찰하도록 하였다. 조사원은 실외놀이가 진행되는 시간 동안 실외놀이 영역 내에 체재하고 있는 아동의 연령, 성별, 놀이/행위에 대하여 5분 간격으로 관찰기록지에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사례분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첫째, 실측조사에서 수집된 시각자료(사진)와 실외놀이터 배치도를 바탕으로 실외놀이터의 위치, 면적, 놀이기구 및 종합놀이기구 유형과 기능, 바닥재료, 경계표시 및 단차 등으로 실외놀이터 환경 특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실외놀이터의 놀이영역 구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최목화 외(2006)의 연구에서 분류된 놀이영역으로 신체놀이영역, 비구조화 및 극화놀이영역, 자연탐구영역, 휴식영역, 모험놀이영역의 5가지 유형을 기준으로 조사대상 실외놀이터의 놀이 영역을 분류하였다(표 1). 셋째, 관찰조사에서 관찰된 아동의 놀이행동은 선행연구(신동주, 1997; 김성순, 1998; 김명준, 2000; 이화정, 2000)에서 분류된 놀이행동유형을 기초로 3개 범주 12개 놀이행동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¹⁾. 놀이행동이 2가지 이상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예: 모래를 파며 친구와 이야기하기) 중복 체크하였다. 넷째, 실외놀이터의 5가지 놀이영역에서 관찰된 아동의 놀이행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관찰조사에서 나타난 놀이행동은 5분마다 관찰된 놀이행동 횟수의 합계를 빈도로, 각 항목의 빈도를 항목의 합으로 나눈 값을 비율로 하였다. 아동 특성에 따른 놀이행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외놀이 환경 특성과 놀이행동 특성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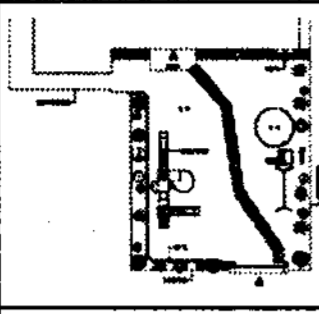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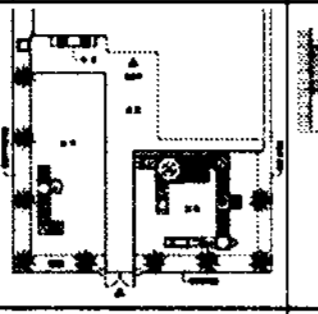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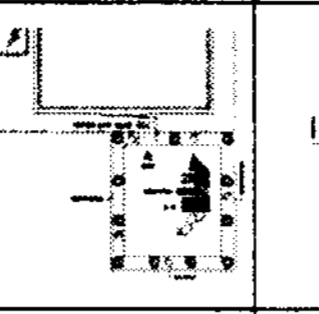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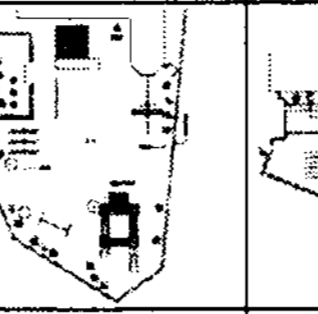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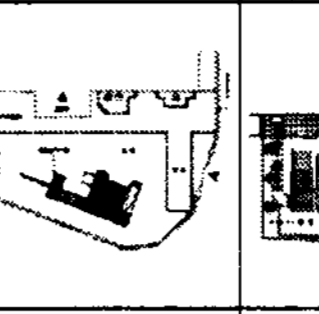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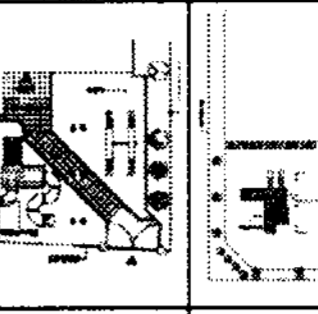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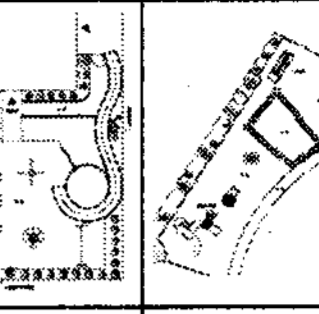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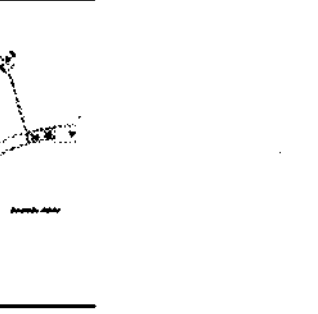
III. 조사 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 실외놀이터의 환경 특성

실외놀이터 환경특성은 크게 실외놀이터의 일반 특성, 어린이집 주출입구에서 건물 입구까지의 진입동선, 설치된 놀

1) 놀이행동 유형은 ① 인지놀이 : 기능놀이, 구성놀이, 상징놀이, 규칙 있는게임, ② 기타놀이 : 탐색, 잡담, 거친-씨름놀이, 쫓기게임, ③ 비놀이행동 : 비참여행동, 방관자적 행동, 전환, 공격적 행동의 3범주 12개 놀이행동으로 분류하였다.

표2. 조사대상 실외놀이터 환경의 일반 특성

구분	사례A	사례B	사례C	사례D	사례E	사례F	사례G	사례H
배치도								
면적	324.370m ²	184.470m ²	141.856m ²	456.362m ²	188.309m ²	117.155m ²	317.743m ²	480.071m ²
위치	앞마당	앞마당	옆마당	뒷마당	앞마당	앞마당	옆마당	옆마당
놀이 기구	종합놀이기구, 그네, 미니미끄럼틀 2개, 모래놀이터, 수도, 화단	종합놀이기구 2개, 벤치, 화단	종합놀이기구, 화단	종합놀이기구, 구름사다리, 그네, 그물, 시소, 철봉, 타이어, 차양, 벤치, 화단	종합놀이기구, 그네, 정글짐, 타이어	종합놀이기구, 시소, 화단	종합놀이기구, 그네, 펌프시소, 철봉, 회전놀이기구, 화단	종합놀이기구, 모래놀이터, 수도, 놀이집, 테이블+의자, 화단
바닥재	모래	모래	모래	모래	모래	모래	모래	모래
경계 표시	보행로(보도블록), 화단(타이어), 모래놀이터(플라스틱 블록)	보행로(보도블록), 화단(블록)	화단(벽돌)	-	보행로(보도블록)	보행로(보도블록), 화단(블록)	화단(철제울타리)	보행로(보도블록), 모래놀이터(타이어), 화단(블록)

* 모래놀이터 : 모래놀이 영역이 다른 놀이영역과 분리되어 독립된 영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

이기구 및 시설, 놀이영역 구성으로 분류하여 파악하였다.

1) 실외놀이터의 일반 특성

조사대상 실외놀이터 환경의 일반 특성은 놀이터의 면적, 위치, 바닥재, 영역경계표시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표 2).

먼저 실외놀이터 면적을 영유아보육법의 면적기준인 영유아 1인당 2.5m²와 비교해 볼 때 사례B(1.0m²), 사례C(1.3m²), 사례E(1.6m²), 사례G(1.5m²)는 기준치보다 협소하여 아동의 놀이행동을 적절히 지원하기 어려운 크기임을 알 수 있다. 실외놀이터의 위치는 앞마당인 경우가 4개의 사례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옆마당인 경우가 3개 사례, 뒷마당에 있는 경우가 1개 사례였다. 실외놀이터의 바닥재는 조사대상 실외놀이터 모두 모래를 사용하고 있었다. 즉 조사대상 실외놀이터 모두에서 놀이기구가 모래 위에 설치되어 있으며, 아동의 다양한 놀이에 따라 단단한 바닥과 부드러운 바닥 등 다양한 바닥 재료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없었다. 놀이영역간의 경계표시는 4개의 사례(사례A, B, E, F)에서 보행로와 놀이영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보행로에 보도블록을 설치하였고, 2개의 사례(사례A, H)에서는 모래놀이터 주변에 플라스틱 블록과 타이어를 이용하여 다른 놀이영역과 구분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실외놀이터는 화단을 구분하기 위하여 벽돌, 철제울타리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 외의 다른 놀이영역을 구분하기 위한 뚜렷한 경계표시는 없었다.

2) 어린이집 주출입구로의 진입동선과 실외놀이 공간과의 관계

어린이집 대문에서 건물 출입구의 진입 동선과 실외놀이터와의 관계는 놀이공간의 독립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분석하였다. 실외놀이터가 앞마당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사례C, D, G, H)는 놀이공간의 독립성이 확보된 것으로 간주하고, 본 연구에서는 실외놀이터가 앞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4개의 사례(사례A, B, E, F)를 중심으로 주출입구의 진입동선과 실외놀이 공간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실외놀이터가 앞마당에 설치된 4개의 사례 모두 어린이집 대문에서 건물 현관으로의 진입로

의 바닥 재료를 실외놀이 공간과 다르게 사용하여 어린이 집으로의 진입동선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실외놀이 공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례A, 사례B, 사례F는 진입로를 중심으로 실외놀이 공간이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어, 실제 실외놀이가 진행될 경우 아동들이 진입로를 넘나들거나 아동들의 놀이공간으로 포함되게 됨으로써 진입로의 독립성 확보가 불가능하고 진입동선과 실외놀이 공간이 서로 혼재될 수 있었다.

3) 설치된 실외놀이기구 및 놀이시설

조사대상 실외놀이터 모두 종합놀이기구 중심의 놀이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종합놀이기구의 기능적 측면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종합놀이기구의 기능별 유형²⁾을 보면, 기구중심형의 종합놀이기구는 3 사례(사례A, C, E), 이동 중시형은 3 사례(사례B, D, H), 공간 점유형은 2 사례(사례F, G)에서 설치되어 있었고, 복합형의 종합놀이기구는 없었다. 종합놀이기구의 형태는 모두 성곽이나 집모양을 하고 있었다. 종합놀이기구 외의 놀이기구로는 그네, 시소, 미끄럼, 회전놀이기구 등과 같이 전통 놀이기구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사례 G의 경우 펌프시소와 같이 전통 놀이기구의 기능과 디자인을 변형시킨 변형 놀이기구도 있었다. 이는 공간의 크기와 위치에 관계없이 대부분이 기구중심형이나 이동중시형의 종합놀이기구가 획일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아동들의 다양한 놀이와 경험을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실외놀이 공간과 놀이영역 구성

조사대상 실외놀이터의 놀이영역 구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놀이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놀이 활동을 지원해주는 놀이기구와 시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표 3).

2) 임미숙 외(2004)는 종합놀이기구를 주된 기능에 따라 기구 중심형(철봉, 미끄럼 등의 개별 기구들이 결합된 경우), 이동 중시형(구름다리, 외나무다리, 터널통로와 같은 이동기능을 중심으로 결합된 경우), 공간 점유형(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상상놀이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복합형(세 가지 특성이 혼합된 경우)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조사대상 실외놀이터의 영역구성은 2개의 영역과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았으며,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된 경우와 1개의 영역으로 구성된 경우가 각각 1 사례에서 나타났다. 즉, 모든 조사대상 실외놀이터는 신체놀이영역, 자연탐구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신체놀이영역에는 종합놀이기구와 그네, 시소가 많이 설치되어 있었다. 비구조화 및 극화놀이영역은 2 사례(사례A, H)에서 모래놀이터, 수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물놀이를 위한 수도는 모래놀이영역과 인접한 곳에 배치되어 있었다. 또한, 사례H의 경우 아동들이 역할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집이 설치되어 있었다. 자연탐구영역은 모두 화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울타리와 함께 설치되어 울타리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침엽수종의 관목들이 있어 관상용의 자연요소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채소밭, 동물장 등 아동이 자연을 탐색하고 자연과 직접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요소는 전혀 없었다. 휴식영역은 3개의 사례에서 테이블+의자, 벤치, 차양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크기, 형태, 위치 등에서 아동이 휴식할 수 있도록 적절히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휴식영역에서의 휴식 또는 정적 놀이 활동이 다른 놀이 활동으로부터 침해받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위치에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조사대상 실외놀이터에는 모험놀이영역이 있는 경우가 전혀 없었다.

표3. 조사대상 실외놀이터의 영역 구성

분류	신체놀이 영역	비구조화·극화놀이영역	자연탐구영역	휴식영역
사례A	종합놀이기구, 그네, 미니미끄럼대	모래놀이터, 수도	화단	-
사례B	종합놀이기구	-	화단	벤치
사례C	종합놀이기구	-	화단	-
사례D	종합놀이기구, 구름사다리, 그네, 그물, 시소, 철봉, 타이어	-	화단	차양, 벤치
사례E	종합놀이기구, 그네, 정글짐, 타이어	-	-	-
사례F	종합놀이기구, 시소	-	화단	-
사례G	종합놀이기구, 그네, 펌프시소, 철봉, 회전놀이기구	-	화단	-
사례H	종합놀이기구	모래놀이터, 수도, 놀이집	화단	테이블+의자

2. 실외놀이터에서의 놀이행동 특성

실외놀이터에서 관찰된 아동의 놀이행동은 3개의 범주 12개의 놀이행동 유형으로 분석한 결과(표 4), 기능놀이가 3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구성놀이가 32.7%로 많이 나타나 기능놀이와 구성놀이가 전체 놀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방관자적 행동(9.2%)과 잡담(7.5%), 비참여 행동(4.0%), 전환(3.4%), 탐색(2.9%), 상징놀이(2.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거친-씨름놀이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규칙이 있는 게임(0.1%)과 공격적 행동(0.1%), 쫓기게임(0.3%)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실외놀이 기구를 이용한 기능놀이나 모래 등을 이용한 구성놀이 이외의 다양한 놀이가 실외놀이터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놀이행동이 다양하게 일어나지 않고 기능놀이와 구성놀이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것은 조사대상 실외놀이 공간에 제공된 놀이기구 및 시설과 놀이영역 구성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아동의 특성(성, 연령)에 따른 놀이행동 특성(놀이행동, 놀이영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아동의 성별에 따른 놀이행동 특성을 보면, 놀이행동이 관찰된 놀이영역에서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경향을 살펴보면, 남아와 여아 각각은 모두 신체놀이영역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녀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놀이영역으로는 신체놀이영역, 비구조화 및 극화놀이영역, 자연탐구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식영역에서의 놀이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의 성별에 따른 놀이행동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아의 경우 비놀이행동, 여아의 경우 비놀이행동, 남녀 모두인 경우는 인지놀이와 기타놀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에 따른 놀이행동 특성을 보면, 놀이행동이 관찰된 놀이영역의 경우 아동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3~4세 아동은 신체놀이영역, 5세는 비구조화영역을, 6세는 신체놀이영역과 자연탐구영역, 7세 아동은 신체놀이영역과 비구조화영역, 연령이 혼합된 경우는 비구조화 및 극화놀이영역과 자연탐구영역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놀이행동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경향을 살펴보면, 3~4세의

표4. 조사대상 사례별 관찰된 아동의 놀이행동 유형

	인지적 놀이				기타 놀이				비놀이 행동				계
	기능놀이	구성놀이	상징놀이	규칙게임	탐색	잡담	거친-씨름놀이	쫓기 게임	비참여 행동	방관자적 행동	전환	공격적 행동	
사례A	52(31.5)	37(22.4)	0(0.0)	0(0.0)	1(1.8)	15(9.1)	0(0.0)	0(0.0)	13(6.7)	24(14.6)	23(7.3)	0(0.0)	165(100.0)
사례B	23(22.1)	58(55.8)	8(7.7)	0(0.0)	3(2.9)	10(9.6)	0(0.0)	0(0.0)	0(0.0)	2(1.9)	0(0.0)	0(0.0)	104(100.0)
사례C	50(31.1)	75(46.6)	0(0.0)	0(0.0)	0(0.0)	11(6.8)	0(0.0)	0(0.0)	2(1.2)	18(11.2)	5(3.1)	0(0.0)	161(100.0)
사례D	84(56.4)	11(7.4)	0(0.0)	0(0.0)	6(4.0)	8(5.4)	0(0.0)	0(0.0)	12(8.1)	26(17.5)	2(1.3)	0(0.0)	149(100.0)
사례E	39(34.5)	26(23.0)	7(6.2)	0(0.0)	0(0.0)	7(6.2)	0(0.0)	1(0.9)	16(14.2)	7(6.2)	10(8.9)	0(0.0)	113(100.0)
사례F	25(41.0)	24(39.3)	3(4.9)	1(1.6)	0(0.0)	2(3.3)	0(0.0)	3(4.9)	0(0.0)	2(3.3)	1(1.6)	0(0.0)	61(100.0)
사례G	99(48.3)	64(31.2)	0(0.0)	0(0.0)	6(2.9)	17(8.3)	0(0.0)	0(0.0)	6(2.9)	13(6.3)	0(0.0)	0(0.0)	205(100.0)
사례H	87(32.6)	105(39.3)	11(4.1)	0(0.0)	19(7.1)	22(8.2)	0(0.0)	0(0.0)	0(0.0)	21(7.9)	1(0.4)	1(0.4)	267(100.0)
계	459(37.5)	400(32.7)	29(2.4)	1(0.1)	35(2.9)	92(7.5)	0(0.0)	4(0.3)	49(4.0)	113(9.2)	42(3.4)	1(0.1)	1225(100.0)
	889 (72.6)				131 (10.7)				205 (16.7)				

아동은 비놀이행동, 5세는 인지놀이와 비놀이행동, 6세는 인지놀이와 기타놀이, 7세는 비놀이행동, 연령이 혼합된 경우는 인지놀이와 기타놀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실외놀이터 환경 특성과 놀이행동 특성의 관계

1) 사례별 실외놀이터 환경 특성과 놀이행동 특성

사례A의 면적은 비교적 넓은 편(아동 1인당 3.8m²)이며, 앞마당에 위치하고 어린이집 건물로의 진입동선이 실외놀이 공간과 분리되어 있다. 바닥재는 모래로 되어있고, 실외놀이터와 건물 진입로의 바닥 재료를 달리하며, 플라스틱 블록으로 모래놀이영역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실외놀이터에서의 놀이행동은 다양하게 관찰되었으나, 기능놀이와 구성놀이 이외의 상징놀이, 규칙 게임 등의 놀이행동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방관자적 행동, 전환 등 비놀이행동이 많이 나타났다.

사례B의 면적은 협소하며(아동 1인당 1.0m²), 놀이영역은 종합놀이기구만 있는 신체놀이영역으로 단조롭게 구성되어 있다. 놀이터 면적은 협소하나 종합놀이기구 외의 다른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아동들이 자유로운 놀이를 할 수 있는 빈공간이 있다. 바닥재는 모래로 되어있으며, 어린이집 건물로의 진입동선이 실외놀이 공간과 분리되어 있다. 실외놀이터에서의 놀이행동은 구성놀이가 가장 많았고 기능놀이, 상징놀이 등 다양한 놀이행동들이 나타났다. 이는 놀이터 면적이 협소하여 신체 움직임이 제한되므로 기능놀이가 구성놀이보다 훨씬 적게 나타나는 반면 빈 공간에서의 구성놀이가 가장 많이 관찰되어 짐을 알 수 있다. 특히 비참여 행동이나 방관자적 행동 등의 비놀이 행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사례C의 면적은 협소하며(아동 1인당 1.3m²), 놀이영역은 신체놀이영역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래를 바닥재로 사용하고 있다. 놀이터 면적은 협소하나 고정된 놀이기구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아동들이 자유로운 놀이를 할 수 있는 빈공간이 있다. 실외놀이터에서의 놀이행동은 구성놀이와 기능놀이가 주로 나타났고, 비놀이행동인 방관자적 행동과 전환 등이 나타났다. 상징놀이나 규칙 게임 등의 놀이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빈 공간에서의 구성놀이가 기능놀이보다 많이 관찰되었다.

사례D의 면적은 법적인 최소기준은 충족하며(아동 1인당 2.5m²), 바닥재는 모래로 되어 있고, 다양한 놀이기구들의 신체놀이영역과 차양, 벤치의 휴식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외놀이터에서의 놀이 행동은 기능놀이가 많이 나타났으며 구성놀이가 일부 나타난 반면, 상징놀이와 규칙 게임은 전혀 없었다. 이는 놀이기구들이 아동의 놀이행동을 자극하지 못하는 시설들로서 비 놀이행동인 비참여, 방관 등이 비교적 많이 관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E의 면적은 협소한 편이고(아동 1인당 1.6m²), 신체놀이영역만의 매우 단순한 놀이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외놀이터에서의 놀이 행동은 기능놀이와 구성놀이가 많았고 상징놀이가 일부 관찰되었다. 이는 협소한 공간의 기구중심형 놀이공간에서 보여 지는 놀이행동으로 규칙 게임이나 탐색활동은 전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례F의 면적은 넓은 편이며(아동 1인당 4.3m²), 바닥재는 모래로 되어 있고, 신체놀이영역 중심의 단조로운 놀이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외놀이터에서의 놀이행동은 기능놀이와 구성놀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놀이행동들이 나타났다. 놀이터 크기 자체가 넓은 면적은 아니지만 아동 수에 비하여 충분한 공간이 제공되어지는 곳으로 상징놀이와 규칙 게임의 놀이행동이 일부 관찰되었다.

사례G의 면적은 협소하며(아동 1인당 1.5m²), 바닥재는 모래로 되어 있고, 신체놀이영역만의 매우 단조로운 놀이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외놀이터에서의 놀이행동은 기능놀이와 구성놀이가 주로 나타났고 상징놀이나 규칙 게임 등의 놀이행동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사례H의 면적은 적절한 편이며(아동 1인당 2.9m²), 다양한 놀이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외놀이터에서의 놀이행동은 기능놀이와 구성놀이가 많이 나타났으며, 상징놀이가 일부 나타났으나 규칙 게임과 같은 놀이행동은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2) 실외놀이터 환경 특성과 놀이행동 특성 관계 분석

실외놀이터의 물리적 특성은 놀이터 위치, 아동 1인당 면적, 놀이영역으로, 놀이행동은 인지놀이, 기타놀이, 비놀이로 분류하였다. 놀이행동별 관찰 횟수의 합계(빈도)를 점수화하여 t-검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실외놀이터 환경 특성과 놀이행동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먼저, 실외놀이터의 위치와 놀이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표 5), 인지놀이의 경우 놀이터의 위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놀이행동과 비놀이행동은 놀이터의 위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지놀이의 경우 놀이터가 뒷마당이나 옆마당에 설치된 경우가 앞마당에 설치된 경우보다 더 많이 관찰되었다. 실외놀이터의 아동 1인당 면적과 놀이행동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표 5), 그 경향을 보면 2.5m² 미만인 경우는 인지놀이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2.5m² 이상인 경우는 다양한 놀이에 분포되어 있었다.

표5. 놀이터 위치와 아동1인당 면적별 놀이행동의 t-검증 결과

	위치	인지놀이		기타놀이		비놀이행동	
		m	S.D.	m	S.D.	m	S.D.
위치	앞마당	75.75	17.15	10.50	4.93	24.50	27.69
	앞마당 외	146.50	46.83	22.25	13.50	26.75	9.18
	t-값(Sig.)	-2.837(.030)*		-1.635(.153)		-.154(.886)	
면적	2.5m ² 미만	112.25	40.41	13.75	6.50	19.75	13.15
	2.5m ² 이상	110.00	64.71	19.00	15.43	31.50	24.28
	t-값(Sig.)	.059(.955)		-.627(.554)		-.851(.427)	

* p<.05

놀이영역별 놀이행동이 관찰된 횟수를 보면, 먼저 신체놀이영역에서는 기능놀이가 29.4%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비구조화 및 극화놀이영역에서는 구성놀이(27.5%)가 가장 많았다. 구성놀이의 내용을 보면 모래담기, 모래 비 내리

기, 모래 구덩이 파기 등 주로 모래를 이용한 놀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자연탐구영역에서는 탐색활동(0.3%)과 잡담(0.3%), 방관자적 행동(0.1%)만이 나타났다. 이는 자연탐구영역이 조정이나 울타리 목적으로 조성된 화단으로 되어 있어 신체놀이영역이나 비구조화 및 극화놀이영역에서보다 탐색활동이 많이 관찰되지 못했다. 휴식영역의 경우 2개의 사례만이 벤치나 의자 등 아동의 휴식이나 정적 놀이를 위한 공간 및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벤치나 의자의 크기, 위치, 구성 등이 아동의 활동을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휴식영역과 다른 놀이영역이 혼재되어 있어 휴식영역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휴식영역에서는 휴식, 정적 놀이행동뿐 아니라 다른 놀이행동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놀이영역과 놀이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6), 놀이영역에 따라 놀이행동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놀이영역과 비구조화 및 극화놀이영역에서 모든 놀이행동이 집중되어 나타난 반면, 자연탐구영역과 휴식영역에서는 놀이행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자연탐구영역과 휴식영역이 놀이영역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자연탐구영역의 경우 단순히 관상용 화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휴식영역은 벤치, 테이블, 의자 등의 크기, 형태, 위치가 적절하지 못하고 그들을 제공하는 시설이 없어 아동의 흥미와 관심을 자극하지 못하여 놀이가 유발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조사대상 실외놀이터에는 다양한 놀이영역이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체놀이영역과 비구조화 및 극화놀이영역에만 놀이행동이 집중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표6. 놀이영역별 놀이행동의 분산분석 결과 (n=8)

	인체놀이		기타놀이		비놀이행동	
	m	S.D.	m	S.D.	m	S.D.
신체놀이영역	53.25	23.31	10.13	6.47	17.50	16.81
비구조화/극놀이영역	57.88	42.98	5.50	5.55	7.88	6.90
자연탐구영역	.00	.00	.75	1.75	.25	.71
휴식영역	.00	.00	.00	.00	.00	.00
F값(Sig.)	13.824(.000)*		9.333(.000)*		6.587(.002)*	

* p<.05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외놀이 환경 특성과 아동의 실외놀이 행동 특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사례연구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외놀이터 환경 특성을 보면, 협소한 놀이터, 단조로운 놀이영역 구성, 종합놀이기구의 설치, 모래로 된 바닥재 등 매우 유사하고 획일화된 놀이터 환경이 제공되고 있었다. 따라서 실외놀이 환경은 보육시설의 특성과 아동의 발달단계에 적합하도록 다양한 놀이영역 구성과 그 영역에 적합한 놀이기구 및 시설을 배치하고, 단단한

바닥과 부드러운 바닥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의 실외놀이 행동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아동의 놀이행동은 전체적으로 기능놀이와 구성놀이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상징놀이, 규칙 있는 게임, 탐색놀이 등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셋째,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실외놀이 환경은 전체적으로 협소하고, 놀이영역이 한 영역에서 새 영역으로 된 단순한 구성과 종합놀이기구 중심의 고정된 구조물의 설치, 모래바닥만으로 된 바닥구성으로 되어 있어 아동의 놀이행동을 다양하게 유도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협소한 놀이터 환경 가운데 종합놀이기구로만 채워진 놀이터에서는 신체놀이 중심의 기능놀이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반면, 빈공간이 주어진 곳에서는 구성놀이가 기능놀이보다 더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협소한 공간에는 규모가 큰 종합놀이기구보다는 빈 공간을 활용하여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실외놀이터 환경 특성과 놀이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즉 신체놀이영역에서는 기능놀이가 주로 나타나고 비구조화 및 극화놀이영역에서는 구성놀이가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이외의 다른 놀이영역인 자연탐구영역은 대부분 화단이 설치되어 있으나 주로 관상용으로 일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아동과의 상호작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이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징놀이나 탐색활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질적 수준이 높은 놀이터에서는 주로 상징놀이와 규칙 있는 게임 등의 놀이가 많이 나타나는 반면, 질적 수준이 낮은 놀이터에서는 기능놀이와 구성 놀이가 많이 나타난다는 선행연구결과(김명준, 2000)와 같이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아동의 놀이행동이 실외놀이터의 환경 특성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다양한 놀이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실외놀이 환경을 다양한 놀이영역으로 구성하고 적합한 놀잇감을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아동의 다양한 놀이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놀이 환경 특성에 적합한 실외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보육시설에서는 실외놀이 활동에 교사의 적극적 개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실외놀이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명준(2000). 실외놀이환경의 질적 수준과 유아의 놀이 행동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논문.
- 김성순(1998). 실외놀이 환경의 질적 수준에 따른 유아의 놀이행동,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 변혜령, 최목화(2006). 서울지역 어린이집의 실외놀이 환경 구성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5(2).
- 신동주, 신혜영, 박소연(1997). 실외놀이터 환경 변화가 유아의 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 삼성복지재단 제5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